

韓國의 製藥工業

大韓藥品工業協會會長 姜 重 熙

우리나라의 製藥工業은 距今 約 10年餘를 사이에 두고 오늘과 같은 近代的인 面貌를 갖추게 된 感이 있으나 아직도 發展途上에 있는 形便이라고 하겠는바 이는 現在까지 國內製藥의 實態가 大部分 外來原料를 主劑로하는 製劑業的인 製品生産이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닌 까닭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其 歷史가 日淺한 우리 處地로서는 製劑業인 製藥工業이 初創期의 其 始發點이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外國製인 完製醫藥品の 輸入에만 依存하든 醫藥品の 需給事情은 國內生産品으로 完全히 代替하여 充當할 수 있게 되었고 國內 3百餘 製藥業體에서는 近7千餘種의 各種 醫藥品을 生産하고 있어 年間 其 生産高가 125億원에 達하며 其 需要도 每年 20~30의 增加를 示顯하고 있는 實情이다.

外來醫藥品과 比肩할 수 있는 醫藥品의 生産을 爲하여서는 最新施設의 完備와 先進技術의 導入 등으로 品質向上을 爲한 努力이 繼續되어 왔으며 이를 契機로 製藥原料의 生産分野에도 進出하는 製藥業體가 漸增하고 있어 67年度에는 50餘種에 達하는 340萬弗 相當의 各種 製藥原料를 生産하기에 까지 이르러 오늘에 와서는 우리 製藥界도 製劑業에서 純粹한 意味의 製藥工業으로 脫皮하여 가는 段階에 이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一便 需給面에 있어서는 類似品間의 競爭, 去來秩序의 紊亂等 業界 自體의 陋習이 是正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醫藥品으로서의 堪耐키 어려운 特關稅, 物品稅等 制度上的 隘路마저 介在하고 있어 國民保健을 左右하는 醫藥品生産의 意慾을 低下시킬가 憂慮되는 點이 없지 아니하여 가뜩이나 莫大한 施設投資와 緩慢한 資金 廻轉으로 難境을 克服하기에 汲汲한 製藥業界에 이러한 暗影을 던져주는 要素가 하루 速히 拂拭되도록 努力하여야 하겠고 또한 施藥面에서도 善導를 爲한 支援이 尙다. 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原稿募集

第4號의 原稿를 다음과 같이 募集하오니 會員 諸位께서는 많이 投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記

- ① 內容：投稿 規定, 2項에 準하여야 한다.
- ② 200字 原稿紙를 使用하고 題目 및 姓名은 國漢文 및 英文으로 記載하여야 한다.
- ③ 筆者는 寫眞 1枚와 可及的 該當 部文의 寫眞 2枚를 첨부하며 學(協)會 紹介 및 消息原稿에 는 반드시 適合한 寫眞 2枚를 提出하여야 한다.
- ④ 提出期日：1968年 8月 30日限
- ⑤ 送 付 處：서울特別市 中區 水標洞 11의4
電氣會館 206號 本聯合會
- ⑥ 會誌에 關한 問議處
가)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編輯部 電話 (22) 4309
나) 梨花女大 醫科大學 醫豫科長 金憲奎 (刊行委員長) 電話 (33) 0151

發 祝 展

國 立 科 學 館

館 長 金 有 鎮

(住所) 서울特別市 鍾路區 臥龍洞 2

(電話) 72-2975, 2974